

토닥토닥 짹짹

“정말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2017년이 행복했어요.”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지쳐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주는 건 진심 어린 말 한마디예요.
건넌수록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말들,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조금 껍스럽지만 용기 내어 그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SeAH





Cover Story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365개의 하루하루가 모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년의 시간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훗날 불현듯 2017년의 보석 같은 하루가 선물처럼 떠오르길 바랍니다. 세밀의 묘미는 감사이지요. 한 해 동안 앞서거니 뒤서거니, 혹은 가까이서 멀찍이서 함께했던 소중한 이들에게 선물을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건네보는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Rising SeAH

- 04 **테마 에세이**
 당신의 축복을 세어보세요
- 06 **테마 초대석**
 창원 안계초등학교 양경윤 선생님
- 10 **테마 스토리**
 감사의 힘
- 14 **스페셜 뉴스**
 2017년 세아 주요 뉴스
- 18 **세아는 지금**
 베스트 세아(BEST SeAH) 프로그램
- 22 **타임머신**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 26 **글로벌 세아인**
 PT. SeAH R&I

Together SeAH

- 30 **팀 플레이**
 세아창원특수강
 연주화 난(難)강종 연주 기술개발 TF팀
- 34 **특별한 만남**
 세아씨엠 경영관리팀 김재현, 정다훈 대리
- 38 **더불어 사는 세상**
 2017 세아그룹 공동 사회공헌 캠페인
 나눔세아
- 42 **해피 패밀리**
 목화 리스 만들기 체험
- 46 **컬쳐 가이드**
 공공장소 휴대전화 에티켓
- 48 **SeAH News**
- 49 **People News**
- 50 **Post Box**

발행일 2017년 12월 21일 **발행인** 서영범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홍보파트 02-6970-0095 **기획·디자인** (주)더윌호 02-733-0790
인쇄 드림인쇄(주) 02-464-6161 **사진** A one Studio 02-553-4430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축복을 세어보세요

영어 속담 중에 ‘당신의 축복을 세어보라(Count your blessings)’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축복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갖지 못한 것들,

나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을 불평하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느라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감사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힘들고 지친 마음이 들 때

잠시만 멈춰 서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헤아려보세요.

내 주변의 감사한 일들, 고마운 인연들,

사소하지만 소중한 축복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당연하게 여겼던 혹은 무심코 지나쳤던

무수한 작은 감사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보세요.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원초적 감정을 다스리는 힘 '감사'로 일상을 바꾸다 창원 안계초등학교 양경윤 선생님

원초적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야말로 '감사'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10년째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는 양경윤 수석 교사, 그는 텅 빈 내면을 채우기 위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도 가능하다. 지치고 힘든 날, 우리의 일기 첫 줄을 '감사합니다'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내면도 감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신호이다.

감사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 한 방법이 감사라고 했어요. 제 의견을 보태자면, 감사란 일상을 바꾸게 하는 원초적인 힘, 바로 '감정을 바꾸는 힘' '생각을 바꾸 는 힘'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도 분노, 슬픔, 짜증, 시기 이런 것이 '욱!'하고 올라올 때가 많습니 다.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감정 제어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나름대로 감정 을 조절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을 한 가지씩은 가지게 될 겁 니다. 저는 감사일기가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일상을 행복하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언어 습관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예일대 사회심리학자 존 바그 교수에 의하면 특정 단어의 의미 에 따라 뇌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만약 욕설이나 분노에 가득 찬 언어에 노출되면 부정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긍정적인 단어에 노 출되면 긍정성이 강화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신호 하는 교통경찰 때문에 출근을 빨리 하게 되었 다'와 '수신호 하는 교통경찰 덕분에 출근을 빨리 하게 되었다' 이 두 문장은 의미상으로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문 장이 더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나요? '때문에'는 원인과 결 과를 나타내는 말로서 사실 전달적 의미가 강한 반면, '덕분에'는 그 의미 자체가 감사함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평소 언어 습관을 '때문에' 대신 '덕분에'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마음 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부조리를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말끝마다 습관처럼 ‘감사합니다’를 붙이다 보면 감사의 가치가 퇴색되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 부조리만 보면 정말 답답하죠. 부조리한 세상에서 나의 일을 성실히 한다는 것이 부질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조리한 세상을 한탄만 한다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는 않아요.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DR하브루타교육연구회도 만들어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배움 중심 수업도 활발하게 연구하고, 교실에 ‘질문수업’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그 부조리에 맞서기 위해서 ‘감사’라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종종 ‘감사합니다’를 거의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의 경우, 압박의 세기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내면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이 충만한 사람들이 스스로 내 인품과 인격이 높다고 믿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이처럼 ‘감사합니다’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을 늘 생각하며 말한다면 상대방은 물론 자신의 품격까지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내면이 단단해져야 부당함에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진행하는 하브루타교육은 어떤 교육이며, 감사일기와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하브루타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유대인의 질문하고 대화하는 교육법을 말합니다. 하브루타를 대한민국 교실 현장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하는 것이니 ‘질문수업’이라고 불려도 됩니다. 교실 내에서도 아이들 간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해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돕는 하브루타교육을 하다보면 아이들 간에 존재하는 서열적 관계가 사라지고 수평적 관계를 복원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사일기가 혼자서 세상과 대화하는 것이라면 하브루타는 짝, 친구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이죠.



감사일기를 잘 쓰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처음에는 한 줄도 쓰지 못하시던 분들도 일주일 정도만 연습하면 A4 두세 장씩 감사일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느냐고 의아해하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샤워를 하다 보면 물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물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수도시설에도 감사하게 될 것이고, 물을 데워주는 보일러 시설에도 감사하고, 이를 만들어준 분들의 노고를 떠올리면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상황을 세밀하게 들여다볼수록 감사가 구체성을 띠게 되고 감사의 대상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지요.

우리의 삶을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감사할 일은 너무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굳건하게 나 자신을 세우면서 생활한 나에게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한 나에게 고맙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침을 챙긴 나에게 고맙습니다. 나의 직업에 충실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한 나에게 고맙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에게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 밖의 모든 일들이 나 자신에게 감사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부메랑’ 같은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세상 밖으로 던지면 반드시 나에게도 되돌아오니깐요.

Profile

2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수석 교사로서 많은 일선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고 아이들의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현재 DR하브루타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배움 중심 수업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리더십 교육, 독서 교육 등 여러 주제로 강의해왔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감사일기 쓰기를 컨설팅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교실이 살아있는 질문 수업>, <한 줄의 기적 감사일기> 등이 있다.



세상과 나를 바꾸는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

아기가 ‘엄마, 아빠’를 말할 수 있게 되면, 부모는 그 다음으로 ‘고마워요’를 가르친다.
우리가 낯선 외국에 갈 때도 가장 먼저 배우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고맙습니다’이다.
과연 고맙다는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인류는 아이들에게 그토록 서둘러 그 말을 전수해온 걸까?
왜 낯선 곳에 갈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단어 1순위로 챙기는 것일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감사하는 습관

“이 세상의 수많은 위대한 성공에는 0.3초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Thank you’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에미상을 수상한 바 있는 미국의 저명한 앵커, 데보라 노빌(Deborah Norville)은 자신의 베스트셀러 저서 <감사의 힘>을 통해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그녀는 뉴스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에디션’을 비롯한 수많은 방송의 진행자이자 기자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성공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Thank you’라는 말을 더 자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감사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과 인생에서 성공을 성취하더라는 것이다. ‘Thank you’라는 말을 발음하는 데 드는 시간은 평균 0.3초. 데보라 노빌은 1초도 걸리지 않는 감사의 표현을 통해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0.3초의 기적이라고 비유했다.

감사는 세상과 지혜롭게 소통하는 방법

우리는 흔히 감사를 단순히 마땅히 고마워해야 할 일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또 는 고상한 인격의 반영이라고 한정 짓기도 한다. 하지만 감사는 비단 그런 것만이 아니다. 감사는 삶에 대한 근본 태도이자 세상과 지혜롭게 소통하는 방식이다.
부정하고 원망하고 회피하는 삶은 편리하게 여겨질 수 있다. 깊은 고민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당장에는 마음 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인생의 새로운 생각을 여는 기분 좋은 일들은 모두 긍정적인 태도에서 시작된다. 감사가 그렇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기쁨과 행복감이 밀려온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감사의 태도는 우리에게 상냥하고 정중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가져다준다.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나 자신이 주장하는 것만이 옳다는 편협한 생각과 달리, 감사는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해주어 세상을 더 넓고 깊이 통찰할 수 있게 한다.





감사의 위대한 능력

감사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시켜 마침내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옆 자리의 동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동료는 언제나 걱정해주는 상사에게 감사를 전한다. 그 상사는 건물을 지켜주는 경비원에게, 매일 같은 시각에 도착해주는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감사의 향기가 저절로 퍼져나가 주위 사람들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것이다. 또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에 대한 감사가 마치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와의 유대감이 돈독해지며 보다 쉽게 그들의 협조를 얻게 된다.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고마워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성취의 기회가 생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자가 기여하는 바를 서로 인정하고 고맙게 여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서로 협동이 잘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감사의 마음, 겸허한 자세를 바탕으로 둔 협력은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을 증가시키고, 창의성을 자극하며, 일의 성공률을 높인다. 각자의 자부심은 물론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함께 높아진다.

위기에서 더 빛을 발하는 감사의 힘

물론 감사의 힘이 만능은 아니다. 감사하는 태도나 자세가 일상의 걱정거리나 당혹스러운 일에 대한 면역력을 갖도록 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불쾌한 일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쉽게 무기력해지거나 의욕을 잃게 된다. 두려움이나 절망감이 마음을 지배하면 효과적인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이럴 때 감사하는 마음은 무력함을 강력함으로 바꿔주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히 모든 것을 낙천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실패와 낙담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비로소 역경을 극복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특별한 사건이나 행운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만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 늘 곁에 있는 가족, 다른 날과 다를 것 없는 소박한 한 끼 밥상,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처럼 당연한 것들, 그래서 그 동안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본다는 뜻이다. 우리 삶에 평화와 안정을 주고 삶을 계속 지속시켜주는 진정한 힘은 바로 이 당연한 모든 것에서 오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감사의 힘

기업 구성원에 대한 존중,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행복한 일터와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다. 감사가 지닌 힘을 진작에 인식한 이들 기업은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내용을 관리자의 미션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패더럴 익스프레스(Federal Express)다. 페더럴 익스프레스는 '사원을 고객처럼 존중하면 사원은 고객을 존중할 것이며, 고객에 대한 존중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이러한 경영 비전은 브라보 줄루(Bravo-Zulu)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브라보 줄루는 훌륭히 일을 진행하는 구성원들에게 스티커를 붙여주는 제도로, 회사는 스티커의 숫자에 따라 해당 구성원에게 감사의 선물을 준비한다. 매월 1~4회 정도 회사의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골든팔콘(Golden Falcon) 프로그램도 있다. 이 역시 회사가 정당한 보상을 통해 직원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반면, 겸허함의 결여가 기업의 위기를 가져온 사례도 있다. 140여 년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기업, 에릭슨(Ericsson)은 창업 이후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휴대폰 전파를 잡는 지상 고정 설비 개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해당 부문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시장 점유율도 압도적이었다. 세계 180개국에서 5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모바일 단말기의 약 40%가 에릭슨의 시스템을 통해 이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은 거만했다. 중국 통신 기업 화웨이(Huawei)를 비롯해 에릭슨을 위협하는 통신 설비 분야 경쟁업체가 대거 등장했지만 후발업체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자만했다. 에릭슨의 오만은 '가만히 있어도 1위'라는 판단착오를 가져왔고, 결국 에릭슨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온 화웨이에게 2015년 4월,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수익 면에서도 세계 1위 자리를 내주며 경영 적자에 빠지게 되었다.

참고 서적 데보라 노빌 <감사의 힘>



성공과 도약의 순간들

2017년 세아 주요 뉴스

2017년 한 해도 참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안팎으로 내실을 다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동분서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요.

희망찬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간 2017년 세아 주요 뉴스를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Special News
01

**세아제강, 해외생산 기지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틀 마련**

세아제강은 6월 북미 최초의 생산법인 SSUSA의 안정화 작업을 마치고 본격 상업생산에 돌입했다. 더불어 북미 지역 강관 유통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SP&S는 생산부문 WCSP(West Coast Spiral Pipe)를 신설하고 전문 Spiral Pipe 업체로 거듭나며, 북미 지역에서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한편, 세아제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베트남 철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생산법인 SSV의 제2공장 증설에도 착수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강관 리딩기업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보냈다.



Special News
02

**세아베스틸, 고부가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으로
특수강 No.1 기업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세아베스틸은 올해 군산공장 제강 누적생산 3,000만 톤을 돌파하는 동시에 10월에는 사상 최초로 월간 수출 판매량 4만톤을 달성하며 판매 신기록을 갱신했다. 특히, 글로벌 고객과의 전략적 관계 형성 및 해외 거점 강화를 통해 연간 사상 최대 수출량을 기록하는가 하면 고부가가치 제품인 6대 강종 특화제품 개발에도 착수하며 특수강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Special News
03

**세아창원특수강, 대구경 강관 및
특수합금 시장 진입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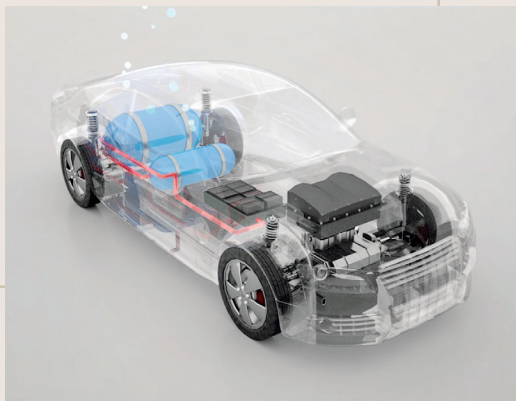
세아창원특수강은 3월 대구경 무계목 강관공장을 준공했다. 새롭게 설비 투자를 마친 대구경 무계목 강관공장은 건축 면적 26,603㎡ (약 8,000평) 규모로 연 35,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제강에서 압출까지 일괄 생산체제를 구축하며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특수합금 생산라인 증설로 고부가 제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 핵심 수익사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Special News
04

세아특수강,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도 양적 성장

세아특수강은 경쟁이 가속화되는 특수강 시장 환경 속에서도 오일청정피막, 비인계 피막 등 제조업 본업인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절감을 이루며 제품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고객 밀착영업을 강화해 국내는 물론 중국 로컬 판매량을 증대시키며,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양적 질적 성장을 모두 달성했다.



Special News
05

세아 FS, 친환경 및 전기차 부품 사업 진출

세아 FS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중국 로컬 전기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을 진행해온 세아 FS는 현대자동차의 수소 자동차 개발업체로도 선정되며 Tier1 사업 진출 기반을 다졌다. 세아 FS는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영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Special News
06

세아씨엠, 컬러강판 전문기업으로 새출발

컬러강판 전문기업 세아씨엠이 7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세아제강 판재사업부문으로서 건축용 철강제품인 컬러강판 생산을 시작한 세아씨엠은 사업부문의 업종 전문화 및 판재부문의 수익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2CCL설비 합리화 작업을 마치고 프린트, 라미네이트 강판 제조가 가능해지며 컬러강판 전문기업으로서 세아씨엠의 경쟁력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Special News
07

세아엔지니어링, 성공적인 신사업 추진으로 성장동력 마련

세아엔지니어링은 TPM(Turbo Power Module) 패키징 신사업을 추진하며 올 한 해에만 250억 원 수주를 확보했다. TPM 패키징은 기존의 발전 설비 대비 발전 효율을 높이고 여름철 전력 부하가 생길 시 전력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발전 설비이다. 세아엔지니어링은 PPL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TPM 패키징에 대한 생산 및 영업,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Special News
08

주변 이해 관계자들과의 동반 성장

세아는 협력사 및 주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먼저, 세아베스틸은 유통 및 단조 협력사와 동반 성장 협약을 체결하며 제품 개발 과정에서부터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고객 초청 기술세미나를 개최해 특수강에 대한 지식을 고객사와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아제강은 자사의 제품을 사용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자금 및 기술 지원을 진행하며 동반 성장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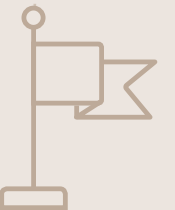


Special News
09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나눔 활동

세아는 올해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나갔다. 세아제강은 9월 허리케인 Harvey 피해자를 위한 구호기금을 전달했으며, 10월 포항 지역에 발생한 지진 피해 성금으로 2억 원을 기탁했다. 세아특수강 역시 1억 원을 기탁하며 지역민을 위한 따스한 온정을 전했다. 이 밖에도 세아베스틸의 '저소득 아동 여름나기 기탁활동', 세아메탈 '사랑나눔 라면 기탁' 등이 진행됐다.

한편, 세아이윤형문화재단은 3월 예술의전당에서 정기음악회를, 10월 충주에서 지역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세아인이 되기 위해 현장에서 시작하라

베스트 세아(BEST SeAH) 프로그램

어렵듯이 아는 사람과 선명하게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업의 근간을 이해하고 현장과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세아인이 되기 위해, 본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현장을 찾아가 뜨거운 2주를 보냈다.



진짜 현장에 가서 느껴보자

서울에서 근무하는 세아인들이 현장으로 내려가 2주간 현장 업무를 직접 배우고 실습하는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세아 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열린 '베스트 세아(BEST SeAH)' 교육이 바로 그것. 'BEST SeAH'는 'Be real SeAH人. Start from ground up'의 약자로, '세아인이 되기 위해 현장에서 시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교육은 사무직으로 일하는 세아인들이 직접 현장 속으로 들어가 배우고 실습하며 우리 업의 근간을 보다 명확하게 깨닫고, 현장과의 유대감을 다지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 초 첫 교육을 시작해 5차수를 맞이한 BEST SeAH 교육에는 세아베스틸, 세아홀딩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에서

총 8명이 참여했으며, 기획부터 경영지원, 글로벌마케팅 등 저마다 업무도 다르고, 직급도 다양한 세아인들이 함께했다.

생산라인 전 공정 따라가며 배운다

BEST SeAH 교육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현장을 대강 둘러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주간 현장에 머무르며 생산공정의 전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 밀도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데 있다. 이번 교육에도 생산관리-제강-연주-대/소 압연-단조 및 가공-설비-대형단조까지 생산라인의 전 공정을 매일 한 곳씩 순차적으로 따라가며 각 공정에 대해 꼼꼼히 배우고 온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이론 교육보다는 실습 과정에 교육 시간의 대부분을 배치하여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현장을 보

다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야간 근무를 포함한 3교대 근무를 직접 서보는 등 24시간 상시 가동되는 현장 특성을 직접 체험하여 그의 미를 더했다.

몸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는 현장

8일차 교육일에는 ‘기술연구소’의 업무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오전에는 기술연구소의 공정연구센터 및 품질보증센터의 업무를 파악한 뒤 실제로 업무를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오후에는 고객기술지원센터 관련 이론 교육을 진행한 뒤 연구 과정을 실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고객기술지원센터 최수조 선임연구원이 해당 센터의 업무 내용을 소개했다. 수주 검토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손 분석 및 고객 대응 프로세스 등 제조 설계 업무는 어떠한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육이 끝난 후 따로 질문을 하시고, 궁금해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발표를 진행한 최수조 선임연구원은 이번 교육생들의 참가 자세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적극적으로 체험하는 모습에서 열정 느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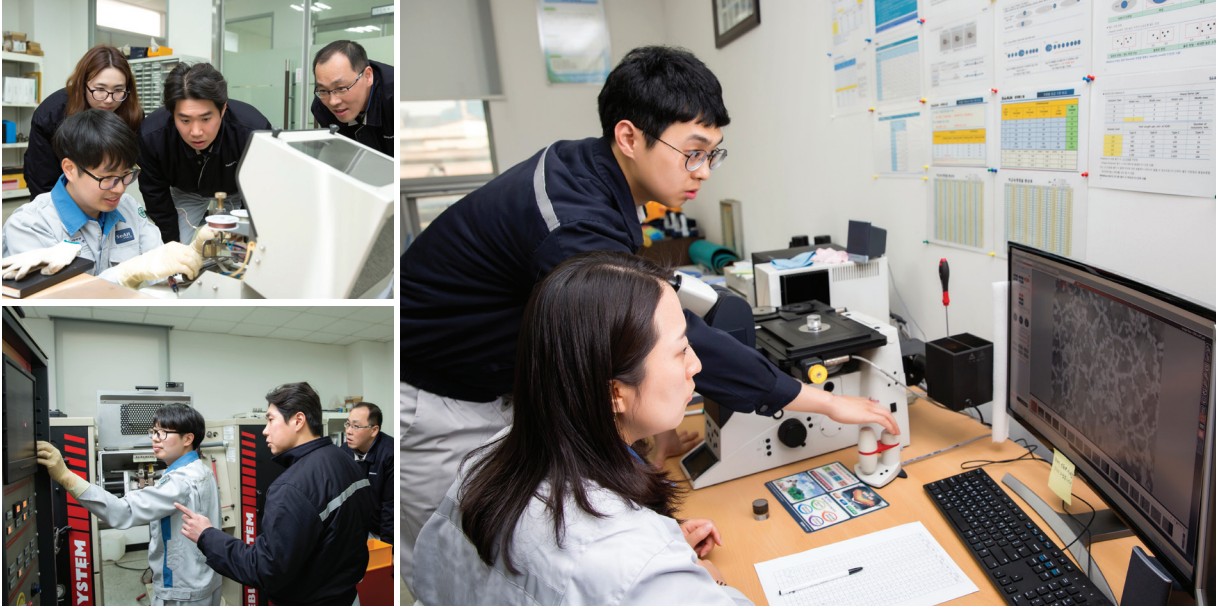
고객기술지원센터 업무에 대해 배운 뒤에는 R&D 시험동으로 이동해 실제 실무 과정을 체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1조는 고객이 의뢰한 제품이 실제 생산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며 수주검토서

작성 업무를 실습했다. 또한 2조는 SEM실에서 광학현미경을 통해 강의 조직을 관찰, 분석하는 업무를 실습했으며, 3조는 신뢰성 평가실에서 제품의 수명 보장 관련 모의 테스트를 진행했다.

현장 교육 담당자들은 연구 장비가 낯선 참가자들에게 각각의 장비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교육 참가자들이 가능한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참가자들의 현장 이해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저희 공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모습에 열기와 열정을 느꼈습니다.”

현장 교육을 맡은 세아베스틸 최우성 대리는 이렇게 말하며 ‘우리 업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녀오길 잘했어

짧은 듯 짧지 않았던 2주간의 교육이 끝나고 이들은 다시 본인의 업무 현장으로 돌아갔다. 이들에게 교육을 마친 소감을 묻자 ‘몸은 힘들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세아홀딩스 재경파트 안미경 사원은 ‘공정마다 온도 체크며 샘플 채취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공정을 자세하게 본 적은 처음이었다’라며 ‘회사에서 어떤 제품, 어떤 소재를 만드는 지 2주 전에 비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저는 원가 분석,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장분들이 제품 원가 등 스펙을 줄 줄 꿰고 있고, 원가 개념이 투철하셔서 놀랐습니다. 앞으로 제 업무에 도움이 될 것들을 많이 여쭙겠습니다.”

세아베스틸 재경팀 이건호 사원도 이같이 말하며 ‘업무에 책임감과 자부심이 더 강해지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자신이 이 일을 왜 하는지 알아야 잘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자신이 하는 업무의 근간에 대해 보다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갖게 된 너른 시야가 앞으로 이들의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본다.



제1회 해암학술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1993년)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발걸음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몸과 마음이 쫘뼛 벌어붙는 겨울, 수많은 기업들이 나눔 활동을 통해 세상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세아 역시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왔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활동이 그 대표적인 예.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온기 어린 발자취를 세아홀딩스 재경파트 고일섭 수석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본다.

“ 거창하게 세간에 내세우지도, 생색내지도 않습니다.

기업의 이익으로 환수할 목적이 아닌 그야말로 순수한 사회공헌 활동이죠.

매년 장학생을 선발할 때도 포토 에세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이 또한 성적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다른 장학재단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일섭 수석 세아홀딩스 재경파트



고일섭 수석은 1999년 해암학술장학재단에 입사하여 2004년 세아홀딩스로 전직 후 현재 재경파트에서 회계,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재단 업무와 재경파트 업무를 겸직한 바 있으며, 18년차 근속자로서 세아를 '많은 것을 이루게 해준 선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인재 양성의 요람, 재단의 장학사업

창업주 해암은 1992년 명예회장에 추대된 후, 기업경영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정신을 구체화하여 그해 12월 31일 재단법인 '해암학술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종덕 명예회장의 사재로 출연한 3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공식 발족한 해암학술장학재단은 설립 목적에서 '사회 일반의 공익에 기여하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사업과 교육 학술 분야에 종사하는 인사와 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족 문

화의 향상과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암학술장학재단은 첫 사업으로 1993년 9월 10일 한국종합무역센터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학업이 우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3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단의 역점사업인 장학사업은 초기에는 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 각 10명, 대학생 39명, 대학원생 6명, 해외유학생 2명 등 67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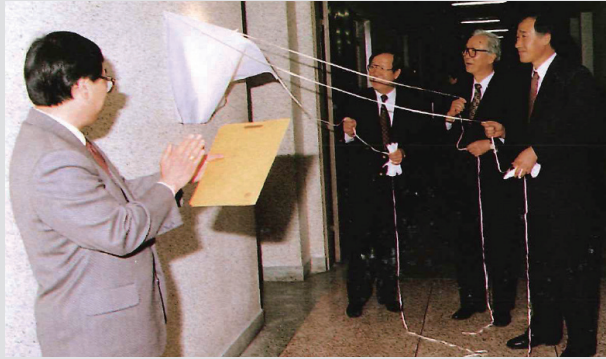
장학금을 받았다. IMF 외환위기로 국민경제가 빠아픈 좌절을 경험했던 1998년에는 가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중·고등학생 50명, 대학생 38명 등 총 94명으로 장학금 수혜 인원을 확대했다.

설립 첫해인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장학금 혜택을 받은 인원은 총 98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약 56억 원에 이른다.

한편, 재단이사회는 2005년 1월 1일을 기하여 재단 명칭을 '재단법인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으로 변경했다. 재단 명칭에 세아를 사용한 것은 그룹의 명칭 통일화



해암장학생 PSP그룹 견학 / 해암장학생 산업시찰(1994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부산파이프의 방 개소식(1994년)
해암학술장학재단 국제 교류 하계수련회 개최(1998년)

작업과 맥을 같이하지만, 보다 성숙한 기업시민으로서 세아그룹이 지향하는 사회적 활동을 미래지향적으로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사회에 봉사하고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세아그룹의 기업정신에 따라 사회적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등 그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장학생 교류 프로그램과 도서지원 사업
재단은 장학사업이 단순한 장학금 지급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아그룹에 대한 장학생들의 이해 증진과 장학생 상호 친목 및 유대를 도모하는 각종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재단 설립 초기부터 매년 장학생을 대상으로 세아그룹 사업장 견학 및 하계수련회 등을 개최하여 의미를 더했다. 특히 1998년에는 7월 29일부터 나흘간 국제 교류 하계수련회를 개최하여 해암 장학생뿐만 아니라 오운문화재단 장학생 및 연세대 어학당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등 총 16개국 120명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속촌 견학, 세아제강 포항공장 견학, 경주 관광 등의 일정으로 운영된 청소년 국제 교류 하계수련회에서 해암 장학생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학생들과 폭넓은 교류를 할 수 있었다. 한편, 장학생들은 자치 모임인 ‘처럼’을 결성하여 장학생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사

회봉사에도 정기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단은 장학사업과 별도로 도서지원 활동을 전개해왔다. 도서지원 사업은 교육여건이 낙후된 벽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중심으로, 각 지역 교육청 및 지역 소재 계열사로부터 대상학교를 추천 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단은 도서 업무 담당 교사와 직접 연락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파악한 후 일괄 구매하여 해당 도서를 직접 발송하고 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도서 등 상대적으로 고가의 교부재를 학교 측에서 요청하여 이를 지원하는 등,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2016년 말 기준으로 150개 학교에 총 3억 4천 200만 원 상당의 도서지원을 집행하였다.

교육 단체 후원 및

세아 Fellowship 설립

연변의 우수한 조선동포들을 한국에 유학시켜 인재로 양성하는 동서문제연구원 지원을 포함하여, 해암학술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사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994년에는 서강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경영대학원 시설 개선 사업에 강의실의 구조와 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기금을 헌정했다. 서강대 측은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재단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강의실 이름을 ‘부산파이프의 방’으로 명명했다. 1997년 10월 3일에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설립 25주년을 맞이하여 김병수 연세대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재단은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세아 Fellowship을 체결하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총 1억 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연변대학교에서 국제경영, 마케팅, 재무관리, 생산관리, 회계 등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경영학 분야의 유능한 교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학술지원 활동과

세아해암학술상 제정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학술지원 사업도 꾸준히 확대했다. 초기 500만 원으로 시작된 학술지원 사업은 매년 증가하여, 2009년까지 지급된 학술지원비는 약 12억 원에 달하며 두 번째 규모의 재단사업이 되었다. 한편, 재단은 보다 적극적인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격려하기 위하여

2007년 ‘세아해암학술상’을 제정했다. ‘세아해암학술상’은 금속재료 관련 연구 분야에서 저술이나 논문 게재, 제반 학술 활동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를 포상함으로써 금속 관련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전반적인 사회풍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학술분야에서도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소재 부문의 연구 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철강소재를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공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학술상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 재단은 2007년 11월 4일 세아해암학술상 첫 수상자로 한양대 공과대학 이경섭 교수를 선정하고 제1회 시상식을 가졌다. 이후로도 재단은 대한금속재료학회의 추천을 받아 세아해암학술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수상 자격에 적합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학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한국부식학회의 정기 학회 연구비를 지원하는 ‘세아 공헌상’을 시행하며 철강 소재 관련 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재단은 2011년부터 미시간대학교 한국학센터에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시간대학교 한국학센터는 미시간 지역 학생 및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 근대사 문화교육 워크숍, 한국예술 체험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해당 프로그램 운영 및 한국학 전공 학생 장학금 지원 등에 올해까지 8년간 13만 달러를 집행하는 등 한국문화 교육 확대에 일조하고 있다.



장학금 전달(1993년)
동서문제연구원 감사패 수여(1997년)
초등학교 도서지원 사업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하계수련회(2009년)

기회를 현실로 바꾸는 추진력

PT. SeAH R&I(Resources & Investment)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흔히 ‘발리’로 대표되는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그간 여행지로만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인도네시아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세아 R&I의 인도네시아 법인 PT. SeAH R&I가 가능성의 땅, 인도네시아의 이야기를 전한다.

글. PT. SeAH R&I 김태현 수석

인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PT. SeAH R&I의 김태현입니다. 먼저 법인 소개부터 드려야겠군요. 세아 계열사 분들을 만나면 이따금 ‘SeAH R&I는 무얼 하는 회사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룹 내에서도 SeAH R&I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더욱 이번 사보가 SeAH R&I와 PT. SeAH R&I를 세아인 여러분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SeAH R&I는 세아그룹 내 비관련 신규 사업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PT. SeAH R&I는 SeAH R&I의 자회사로서 인도네시아 사업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는 현지 법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낯선 나라입니다. 국가명보다 오히려 ‘발리’라는 여행지 이름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죠.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인도랑 다른 나라예요?’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나마 ‘윤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 4위(2억 6천만 명) 국가라는 사실도, 인구의 약 87%가 이슬람 교도인 세계 최대 단일 이슬람 국가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죠. 18,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인도네시아는 석유, 석탄, 니켈, 주석 등이 풍부한 천연자원 부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PT. SeAH R&I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진출의 전초기지 및 교두보

현재 PT. SeAH R&I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총 6명입니다. 도기현 법인장의 진두지휘 하에 박대식 수석이 인도네시아 투자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 담당자인 Hillwan과 Steven, 회계와 인사, 총무 업무를 겸하고 있는 Erlina와 사업 개발 담당인 제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PT. SeAH R&I는 단순히 투자 전문 회사의 역할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업 개발 과정에서 구축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아 계열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및 교두보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산 원재료 공급, 투자 검토 지원, 인도네시아 시장 조사 및 투자 기회발굴 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과 연



계된 활동들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PT. SeAH R&I는 2016년부터 경제적 자립을 달성, 당당하게 자생하는 법인을 뛰어넘어 투자 수익률 22.9%의 실질적인 투자 성과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맨땅에 헤딩에서 사업 범위 확대까지

자원 사업 개발에 집중하던 초창기, 세아 R&I는 미주, 호주 등 글로벌 자원 공룡들의 전쟁터가 아닌 인도네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사무실 임대 및 인테리어, 법인 설립 등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이었죠. 말도 안 통했지만, '사기꾼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인도네시아 자원 시장에서 값비싼 수업을료 내지 않기 위해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고급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했지만, 글로벌 자원 시장 침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법인 존폐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PT. SeAH R&I는 심봉사가 눈을 뜨듯, 새로운 투자 기회를 보았습니다. 개혁의 아이콘 '조코위' 정부로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변화에 주목하자, 인도네시아의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에만 머물러있던 시야가 넓게 트인 것입니다. 이후 세아그룹 유관 광물 자원으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며 PT. SeAH R&I 자원사업은 축소되었지만, 전체 사업 범위는 인프라, 에너지, 물류, 제조업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투자 기회들로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켜주는 오토바이 택시 Ojek

인도네시아에서는 부족한 교통 인프라와 약속 시간 엄수에 둔감한 문화로 인해 미팅 시간에 1~2시간 늦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고위 공무원일수록 미팅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을 당연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늦게 오는 것은 너그럽게 수용하지만, 우리가 미팅에 늦는 일은 없습니다. PT. SeAH R&I에게 지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지옥으로 유명한 자카르타에서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도로 위에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적극 활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바로

‘오젝(Ojek)’. 바로 오토바이 택시입니다. 비가 내리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약속 시간을 지키는 데 오젝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하이에 버금가는 매연과 미세먼지를 직접 마셔야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자주 이용하는 것은 되도록 삼가고 있습니다.

물면 놓지 않는 열정과 끈기

PT. SeAH R&I는 스타트업 마인드로 무장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조직일수록 최선을 다해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넘어 창업가 정신으로 필요한 일을 더 찾아서 하고,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창의적인 고민을 멈추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에는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실현 가능한 계획과 함께 실행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PT. SeAH R&I는 물면 놓지 않는 열정과 끈기로 철강 사업 이외 세아그룹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는 사업 개발 및 확장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간혹 계열사와 연관된 프로젝트들로 인해 계열사 분들의 전문성과 의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본인의 업무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세아인들이 있었기에 난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 다른 계열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항상 지금까지처럼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PT. SeAH R&I

현지 법인 구성원들이 인도네시아의 문화 및 관광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입사 5개월차인 제게 PT. SeAH R&I는 늘 새로운 지식이 창조되는 ‘연구소’같은 존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지역별로 각기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틱(Batik)과 같은 전통 의상도 지역별로 문양과 특징이 다르죠. 여행지로는 발리와 브로모 산(Mountain Bromo)을 추천합니다.
- Erlina 과장

달리기와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는 제게 PT. SeAH R&I는 ‘신나게 일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각 개인별로 배울 점도 매우 많습니다. 추천 관광 명소는 일몰이 아름다운 라부안 바조(Labuan Bajo)입니다.
- Hillwan Yogi Brahmanda 차장



입사 1개월차입니다. 조용하고 원만한 성격이지만 취미는 액티브한 축구를 즐깁니다. 베트남에 아오자이, 일본에 기모노가 있듯, 인도네시아에는 바틱이라는 전통 의상이 있습니다. 수공 염색으로 만들어지는 바틱은 화려한 색상과 무늬를 자랑하죠. 인도네시아에 오시면 꼭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 Steven Chandra 차장

영화 보기가 취미이며, 좌우명은 Sharing is caring(나눔과 배려)입니다. PT. SeAH R&I의 장점은 다양성과 민첩함입니다. 작은 조직만의 신속함을 경쟁력으로, 서로 다른 국적, 각기 다른 뿌리를 지닌 사람들이 어우러져 서로 배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인도네시아 음식은 향신료와 코코넛 우유가 듬뿍 들어간 메단 지역의 요리입니다.
- 박대식 수석



축구, 풋살, 골프, 수영, 헬스 등 각종 운동을 즐깁니다. PT. SeAH R&I는 최소한의 식량과 무기만으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본진 진출의 거점을 마련하는 ‘특공대’와도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눈에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자칫 게을러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린 삶의 문화로 인해 인도네시아인들은 화도 잘 내지 않는 편이고, 행복 지수도 높은 것 같습니다.
- 김태현 수석

기어이 성공에 다다른 도전

세아창원특수강

연주화 난(難)강종 연주 기술개발 TF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실패의 좌절감을 딛고 일어서는 데는 더없이 좋은 금언이다. 그러나 모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패로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무언가를 움켜쥐고 다시 일어난 이들만이 성공에 다다를 수 있다. 세아업적상 기술개발부문 은상을 수상한 세아창원특수강 연주화 난(難)강종 연주 기술개발 TF팀의 사례가 바로 그 좋은 예다.

조업 중단 위험을 딛고 다시

연주화 난(難)강종이란 말 그대로 연주 조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강종을 말한다. 연주란 액체 상태인 용강, 즉 쇠물을 몰드에 부어서 블룸이나 빌렛 등의 중간 소재를 만드는 것으로, 그간 스테인리스강이나 내열강 등 연주 조업이 어려운 강종은 용강을 일정한 주형에 주입하여 자연 응고시키는 잉곳(Ingot) 방식으로 생산해왔다.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같은 산화성 원소가 많이 함유된 강종의 경우 연주화가 어렵습니다. 용강 내에 비금속 개재물이 생성될 확률이 높은 이러한 강종을 연주하면 비금속 개재물이 노즐을 막게 되고, 이로 인해 조업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른바 난(難)강종 연주화가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기술연구소 공정연구 1그룹 표주영 선임연구원이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 같은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가 과거에도 난항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준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티타늄을 첨가한 스테인리스강의 연주화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당시 연주화 시도는 실패에 그쳤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티타늄을 첨가한 해당 강종은 연주화가 불가능한 강종으로 분류되어 왔다.

불가능의 범주를 바꾸다

이제 과거의 분류는 바뀌었다. 지금까지 ‘연주화 불가능’이었던 강종이 어엿하게 연주 조업을 통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난(難)강종의 연주화 기술개발을 위해 표주영 선임을 비롯한 팀원들은 과거 실패 사례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하나부터 다



시 점검했다. 관련 문헌과 논문도 조사하며 연주화 기술을 개발해나갔다. 산화성 원소가 함유된 강종의 특성을 고려해 용강이 산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작업도 더해지며 일부 설비 변경도 이루어졌다.

“연주 속도, 연주 용강의 가열도, 냉각수의 양 등 연주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계산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느냐 물음에 공정연구 1그룹 김인용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답한다.

그런가 하면 3제강팀의 김진용 대리는 ‘공정이 안정화되기까지 소화불량에 시달려야 했다’고 토로한다. 그가 연주 공정 담당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티타늄 첨가 강종의 연주화 작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업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 제깃 본 적 없는 모양을 그리며 오르락내리락했다. 설비에 이상이 생겼나 싶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티타늄 개

재물이 엉겨 붙으며 노즐을 막고 있었던 것. 문제의 실체가 확인된 후, 김진용 대리는 그제서야 소화불량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2년여 동안은 그야말로 치열함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개발 초기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표주영 선임연구원은 쓰라린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고 회고한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잠겨 시름하고 있을 때, 여러 직책 보임자, 동료 및 현장 분들이 기술적 조언과 격려로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기존의 익숙한 작업 방식과 달라진 조업 방식, 변경된 설비와 까다로운 작업 기준에도 현장 작업자 분들께서 여러모로 애써주셨습니다. 그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죠.”

2제강팀 임종현 대리도 사보를 통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한다.

기술개발에서 수익성 증대로

잉곳으로 생산하던 강종을 블룸이나 빌렛으로 연주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무엇을 위해 팀원들은 난(難)강종을 연주하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임종현 대리는 ‘수익성’이라고 명료하게 대답한다.

잉곳의 경우 상단의 압탕 부분, 바닥부인 주탕 부분은 정상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한다. 특히 압탕의 경우 전체 잉곳의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잉곳 조업 강종을 블룸 및 빌렛으로 연주하면 이러한 폐기량이 줄어들면서 수율이 향상된다.

또한 쇳물을 부어놓고 자연 응고되기를 한참 기다려야 하는 잉곳과 달리 인위적 응고가 가능한 연주는 조업 시간 절감이라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정해진 주형(잉곳 케이스)의 수, 작업 공간의 제한 등으로 인해 잉곳 공정은 늘 과부하 상태일 수 밖에 없었지만 이 역시 난(難)강종 연주화 기술개발로 여유가 생겼다.

1개 강종의 연주화에 성공하니 또 다른 강종이 보였고, 이후 차례차례 품목을 확대시켜나갔다. 공정연구1그룹 오상훈 연구원의 눈에 잉곳은 전부 ‘연주화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숙제로만 여겨졌던 연주화 난(難)강종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대상으로 달리 보이게 됐다. 티타늄 합금강의 연주화에 이어 고합금 스테인리스강, 내열강도 연주화에 도전해 성공했다. 특히 알루미늄이 첨가되는 S30432 강종은 연주화 이후 2014년과 비교해 올해 10배 가까이 생산량이 늘었다. 원가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수주량이 증가한 결과다. 난(難)강종 연주화 기술개발 - 원가경쟁력 향상 - 수주 증가 - 수익성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도전에 한계는 없다

“여럿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 현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이죠.”

표주영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는 ‘실패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점을 찾고 보완해나갔던 것이 프로젝트 성공 비결’이라고 덧붙인다.

3제강팀의 정민규 대리도 ‘이전처럼 포기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 개선 방안을 찾은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과거 연주화를 시도했다가 중단됐던



강종을 다시 연주화한다는 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을 터. 하지만 이제 그는 ‘연주화 프로젝트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고정정강 생산 기술 확보, 저원가 조업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한다.

난(難)강종 연주화에 성공하며 수율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가 많다. 이제까지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에 집중해왔다면 향후에는 품질 고도화 및 균질화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연주화가 가능한 강종의 추가 발굴도 중요한 과제다. 난(難)연주 강종으로 알려진 공구강을 세계 최초로 연주화할 때까지 이들은 앞으로도 도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리의 한계는 어쩌면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불가능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표주영 선임연구원. 그와 팀원들의 결연한 눈빛이, 실패를 딛고 목표를 이뤄낸 그들의 당당한 자신감이 끊임없는 경쟁 상황에서 나아갈 길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한 일깨움을 건넨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다가가야죠

세아씨엠 경영관리팀 김재현 대리, 정다훈 대리



왼쪽 세아씨엠 경영관리팀 김재현 대리 오른쪽 세아씨엠 경영관리팀 정다훈 대리

사수와 부사수 간에 마음이 잘 통하고 업무 호흡까지 척척 맞는 것처럼 행복한 게 또 있을까.

여기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다. 특별한 인연의 세아인을 소개하는 이 코너에 “너희가 딱이지!”라고 한 목소리로 추천을 받은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환상의 팀워크를 구축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재현 대리(사수)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씨엠 경영관리팀에서 기획·회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08년에 입사해 어느덧 10년차에 접어들었네요. 성격은 외향적이고, 운동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둘째가 태어나서 아이 보는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정다훈 대리(부사수) 저는 같은 팀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입사해서 올해 대리 진급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 3년차이고, 20개월 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시간은 조금 부족하지만 행복합니다.

두 분이 선후임 관계이자 기숙사에서 2년간 같이 살았다고 들었어요.

김재현 대리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먼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시 저희가 둘 다 결혼 전이어서 기숙사에서 2년 정도 함께 지냈죠. 같이 일하고 밥 먹고 출퇴근하면서 가족처럼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훈씨가 선배랑 사느라 고생이 많았죠. 하하.

정다훈 대리 함께 사는 것이 저에겐 장점이 더 많았어요. 제가 입사 전까지는 계속 서울에 살았는데, 취직을 하면서 군산에 오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이곳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 보니 많이 외로웠는데 선배가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죠. 특히 선배가 주선해준 소개팅 덕분에 군산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어요.





두 분이 추억이 많을 것 같아요.

김재현 대리 마음이 맞아서 운동을 많이 해요. 지리산 중주도 하고, 겨울 시즌에는 어김없이 스키장으로 떠났죠. 작년엔 아침 수영을 같이 시작했는데 3개월 하고 포기도 같이했죠. 하하. 최근에는 회사 일과 후에 1:1 풀코트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생활에 큰 활력을 얻고 있죠.

정다훈 대리 선배와 탁구도 자주 쳐요. 회사에 탁구대가 있어서 점심 먹고 치고, 저녁 먹고 치고. 재미있는 추억을 꼽자면, 선배가 저보다 탁구를 훨씬 잘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를 봐주면서 해도 제가 항상 지거든요. 한번 저도 이겨보려는 욕심에 비싼 탁구채를 사고 열심히 연습해서 선배를 이긴 적이 있어요. 입사 후 4년 만에 이룬 쾌거라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서로 잘 통하니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재현 대리 결국 그런 게 팀워크로 나와요. 이 친구와 제가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면 업무에 임할 때도 딱딱했을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도 많이 못했겠죠. 저희 업무 특성이 워낙 정확해

야 하고, 실수가 용납되기 힘들다 보니까 서로 보완하고 대화하고, 이런 팀워크가 잘 맞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을 원활하게 하는데 평소 좋은 관계를 쌓은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다훈 대리 신입사원 때는 업무를 잘 몰라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고, 꼼꼼하게 가르쳐주셨어요. 선배를 보면서 꼭 따라간 거죠.

사수에게 배웠던 것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정다훈 대리 처음 선배를 보면서 놀랐던 것은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점이었어요. 회사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고,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후배이지만 배울 점이 있다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김재현 대리 다훈씨는 항상 업무를 할 때 긍정적으로 접근해요. 한번은 다훈씨가 저희 업무와 맞지 않는 출하 업무를 하게 돼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결과도 좋게 나왔죠. 지금 분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계 업무도 잘 관리되고 있어요. 본인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점이 훌륭해요.

두 분처럼 사수-부사수 간에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재현 대리 사수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후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사수는 후배가 이야기를 잘 안하죠. 평소에 선배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공통된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게 시너지가 되어 일도 조금 더 진솔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정다훈 대리 후배가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둘이 가까워지려면 누군가 다가가야 하는데, 부사수가 사수에게 다가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부사수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나의 뉴스, 그리고 내년 계획은 무엇인가요?

김재현 대리 올해는 빅뉴스가 많았어요. 회사도 성공적으로 분사했고, 개인적으로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기분 좋은 한 해였습니다. 세아제강 판재사업부가 세아씨엠이라는 하나의 회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만의 가치와 경쟁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내년도 가장 큰 관심사예요. 제가 거기에 일조하고 싶다는 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저희 경영관리팀은 팀장님까지 3명이예요. 셋이 최선을 다해서 이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정다훈 대리 올해 회사가 분사되면서 처음 맡는 일도 많아졌고, 저도 정신없이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더 공부하면서 업무 전문성을 키우고 싶고, 일을 더 체계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둘째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재현 대리 내 인생에서 너라는 사람을 만나서 나는 정말 행운인 것 같고, 직장 선후배 관계에서 난 지금 너무 좋다. 우리 둘이 회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 거고, 앞으로 서로 좋은 팀을 이뤄서 우리 세아씨엠이 정말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멋진 팀워크를 만들어보자!

정다훈 대리 선배님! 지금까지 선배님 모습이 제 회사생활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저는 선배님을 보고 따라왔을 뿐인데 선배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주셨기 때문에 저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가 분할되면서 우리 팀이 할 일이 많이 늘었는데, 선배와 제가 힘을 합쳐서 잘 헤쳐나가고 즐겁게 회사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우리의 사랑으로 이어갈 기적
2017 세아그룹
공동 사회공헌 캠페인
나눔세아



생후 3개월인 한이(가명)을 기다리는 건 백일잔치가 아니라 머릿속에 고여 굳은 피를 빼내는 수술이었습니다. ‘아프다’는 말보다 고통을 먼저 배워야 했던 아이, 한이에게는 세아인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머리에 피가 고이는 병, 두혈종

홀트의원에서 만난 ‘한이’는 또랑또랑한 눈매에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얼핏 보면 여느 아이와 다를 바 없이 건강해 보이는 한이. 하지만 털 모자를 벗은 한이의 봉긋 솟은 머리 모양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제 갓 생후 3개월, 작고 어린 한이의 머리에는 ‘두혈종’이라고 불리는 꽤 큰 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혈종은 신생아의 머리에 생긴 혈종으로, 분만 시 아기의 머리가 강한 압박을 받아 두개 골 골막 아래 출혈이 생기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1~2개월 이내로 혈액이 자연히 흡수되어 부어 오른 혹도 차츰 가라앉는다고 하는데요. 한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혈액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하네요.

큰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한이는 우측 두정엽 근처에 석회화된 두개 혈종으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신마취 수술을 버텨야 해요

“다 큰 어른도 수술을 받고 회복하려면 힘든데, 이렇게 어린 한이가 수술까지 해야 한다니 마음이 많이 아팠죠.”

생후 50일 무렵부터 한이를 보살펴온 위탁모, 홍의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홍의순 어머니는 ‘괜찮을 거야. 수술이 거의 없는 병이라고 하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주문을 외듯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수술이 결정되었고, 어머니 마음은 온통 걱정뿐이었죠.

“인공호흡 장치를 달고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수술입니다. 혈종만 쉽게 제거되면 1시간 내에 수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가 마취를 견딜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건강한 아이라면 몇 시간 정도의 수술은 문제 없겠지만 한이의 경우 혈종을 빨리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한이가 받아야 할 수술에 대해 홀트의원 의사의 선생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한다는 것 자체가 생후 100일 남짓 된 아이가 버티기에는 쉽지 않은 일. 병원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가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위탁 어머니와 담당 선생님께서서는 마냥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보호 받지 못한 출산 환경

“친부모가 사정상 양육할 수 없어서 홀트에 맡겨지는 아이들은 사실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느리거나, 여러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윤주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아이를 위탁하는 엄마들 대부분은 미혼모이거나, 출산하기까지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산·전후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미숙아일 확률이 높고, 집중적인 의료 케어가 필요하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도 될까요? 한이가 앓고 있는 두혈종은 뇌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이 아니라서, 수술만 잘 되면 보통의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머리의 혈종만 제외하면 신장이나 체중도 평균 수준의 안정적 발육을 보이고 있고, 성장 개월 수에 맞춰 웅알이도, 뒤집기도 잘 한다고 하네요. 품에 안을 때마다, 눈 마주칠 때마다 방긋방긋 잘 웃는 귀여운 아이, 한이가 하루빨리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꼭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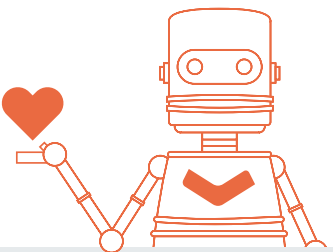
홀트에서 돌보는 위탁 아동들 가운데에는 크고 작은 의료적인 문제로 병원을 다니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이가 '나눔세아'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그만큼 수술이 시급했기 때문이지요. “힘든 시간을 버텨야 하는 한이가 더 안정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따뜻한 마음으로 한이를 응원 해주셨으면 해요.” 이윤주 선생님도 한이를 나눔세아의 대상으로 추천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켜보고 지켜주세요

지난 11월 26일 한이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거친 후 수술을 받은 한이는 12월 1일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이가 행복한 가정에 입양될 때까지 이제 사랑으로 돌보는 것 밖에 없죠.” 앞으로 한이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묻자 홍의순 위탁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나 두혈종으로 한이의 두상이 변형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위탁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야 한시름 놓이나 봅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마쳤지만 일주일간의 입원비와 수술비에 큰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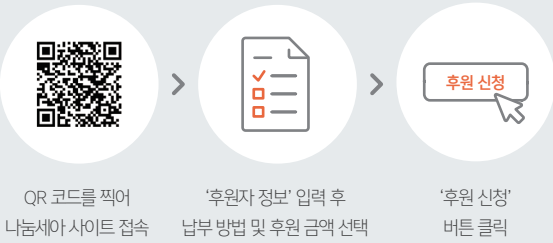


이 들었습니다. 당분간은 꾸준히 통원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한이에게는 여전히 큰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와 헤어짐부터 경험한 한이에게 더 이상의 고통이나 슬픔은 없어야 하니까요. 나눔세아를 통해 지난 2년동안 홀트 아동에게 보내준 세아인들의 마음은 참 따뜻했습니다. 세아인들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아이들 모두 현재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처럼 한이에게도 세아인들이 마음을 모아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이가 어서 빨리 회복해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주는 평생의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세아 가족들이 함께 지켜보고 지켜주세요. 추운 이 겨울이 지나면 머지않아 봄이 오겠지요. 세아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이에게도 따뜻한 봄을 선물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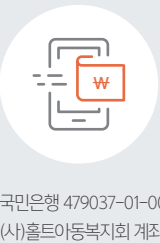


‘나눔세아’ 한이 후원방법

QR코드 후원



지정 계좌로 후원



- 기부금 영수증은 2018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 지정 계좌 후원 시, 보내는 이 앞에 '세아'를 꼭 붙여주시기 바라며 영수증 발급은 홀트(02-331-7073)로 문의해주세요.



나눔세아 사이트 바로가기



더 포근한 겨울 행복 목화 리스 만들기 체험

세아제강 서울영업3팀 한정우 대리 가족

묵은 먼지를 뒤집어쓴 트리를 꺼내는 대신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리스를 걸어 보면 어떨까?
하얀 솜털이 풍성하게 차오른 목화를 이용하면 추운 겨울도 더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아제강 서울영업3팀 한정우 대리 가족이 목화 리스 만들기 체험을 먼저 경험해보기로 했다.



영원과 환영의 상징, 리스

동그란 형태의 결혼 반지처럼, 처음과 끝이 맞닿아있는 모양의 리스는 '영원'을 상징한다. 또한 '환영(Welcome)'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 현관문에 리스를 걸어두면 행운과 축복이 찾아온다고 알려져 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연말 추억도 만들고 사보를 통해 우리 가족을 세아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겨울과 연말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목화 리스 만들기 체험 공지가 올라오자 세아제강 서울영업3팀 한정우 대리는 서둘러 참가를 신청했다.

한정우 대리와의 아내 김정임 씨 그리고 외동 아들 나루까지, 이렇게 단란한 세 명의 가족은 오늘 체험을 위해 주말 아침부터 일찌감치 발길을 서둘렀다. 세 사람 모두 감기에 걸렸지만 일산에서부터 공덕동까지 오는 길이 행여 밀릴까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다고 한정우 대리는 말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라는 남편에 대한 정임 씨의 평가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그런가 하면 한정우 대리는 정임 씨를 ‘책임감이 강한 워킹맘’이라고 소개한다. 시댁과 친정이 모두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그 어렵다는 육아와 직장 일을 함께 해내고 있는 대

단한 여성이라고 아내를 추켜세운다.

“왜소한 몸에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될 때가 많아요.”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대신해 나루의 어린이집 등하교를 도맡고 있는 아내에게 그저 고마울 뿐이라며, 남편은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사보를 통해 슬쩍 표현해본다.

엄마아빠를 반반씩 닮았어요

나루는 올해 여섯 살이다. 예쁜 두상은 아빠를, 선한 눈매는 엄마를 닮았다. 웃을 때 표정이 주변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밝고 씩씩한 아이. 엄마아빠에게는 애교쟁이이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배려도 잘 하는 인기쟁이다. 요즘은 친척 형에게 배운 PC 게임 삼국지에 푹 빠져 있다는 나루. ‘삼국지 캐릭터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라는 물음에는 부끄러운 듯 조금 주저하다가 ‘조운(조자룡)’이라고 답한다.

“주말에만 게임을 허락하는데 아직 어린 나이에든 잘 따라주는 게 기특해요.”

엄마아빠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착한 나루는 아빠가 끓여주는 라면과 엄마의 두부부침 요리가세상에서 제일 맛있단다. 엄마가 잠자리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다.



인테리어와 건강까지 생각한 일석이조 체험

“오늘은 목화와 솔방울, 자이언트 유칼립투스, 구름비를 이용해 리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세 식구가 오순도순 둘러앉아 오늘 목화 리스 만들기를 지도해주는 실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먼저 목화 가지에서 솜이 달린 부분만을 잘라낸다. 잘라낸 가지와 솜이 맞는 부분에 가늘고 잘 휘어지는 와이어를 3~4바퀴 감아 돌린다. 이때 목화솜이 철사의 중간 부분에 오게 하는 것이 핵심.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 목화로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어 입었어요.”

주의력이 쉽게 흐트러지는 어린 나이지만, 나루는 선생님의 설명에 초롱초롱 눈빛을 빛내며 집중한다.

이어서 솔방울 밑동에도 와이어를 감는다. 자이언트 유칼립투스 와 구름비 잎사귀는 서너 겹을 겹쳐서 와이어로 묶어준다.

솔방울은 삶아서 접시에 올려놓으면 머금고 있던 수분을 공기 중에 배출하며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한다. 코알라의 먹이로 알려진 유칼립투스는 허브와 식물이라 손으로 쓰다듬어보면 산뜻한 향을 맡을 수 있다. 불면증 개선 효과도 있어 침대 머리맡에 놓아 두면 좋다고 한다. 천연재료로 만들어 인테리어 효과는 물론 건강에도 좋은 일석이조 체험이다.



언제까지나 알콩달콩 행복하도록

이제 와이어를 감은 재료들을 원형의 틀에 고정시킬 차례. 가족이 각각 하나씩 모두 세 개의 리스를 만들기로 한다. 나루의 고사리손도 빠빠진다. 손질해 놓은 재료들을 하나씩 장식할수록 차츰 풍성한 형태의 리스가 완성되어 간다. 유칼립투스와 구름비의 초록 잎 사이사이 포근한 감촉의 목화솜이 따뜻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마지막으로 리본을 달아주면 목화 리스 만들기 완성. 완성된 리스는 일주일 동안 말린 후 출입구나 방문에 걸면 된다. 지인들을 위한 연말 선물로도 제격이다.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어요?’라고 나루에게 묻자 ‘이제부터 생각해볼게요’라는 진지하고 아무진 대답이 돌아온다.

드라이플라워처럼 목화 리스는 말린 후에도 오래 두고 볼 수 있

고, 겨울이 지나면 간직해두었다가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나루의 생일이 12월 23일인데, 크리스마스와 함께 연말 축제 분위기를 더해줄 좋은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가네요.”

오늘의 완성된 결과물을 바라보며 정임 씨는 ‘시간을 내어 함께 오길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아빠와 나루의 밝은 미소에도 오늘 함께한 시간의 즐거움이 그대로 담겨 있다.

“오늘도 행복하자’가 우리 가족의 구호예요. 이 말처럼 언제까지나 알콩달콩 재미있게 지내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우 대리의 바람처럼, 오순도순 정답게 리스를 만든 오늘의 풍경처럼, 나루네 집 출입구에 걸린 목화 리스가 이 가족에게 영원한 행복을 불러올 것만 같다.

<촬영 협조> 플로보니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43 마포공덕파크밸리스 211호 T. 010-7372-8404

나부터 시작하는 문화생활의 첫걸음 공공장소 휴대전화 에티켓

음악회에서 감미로운 선율에 빠져있거나 미술관에서 조용히 작품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긴장감 넘치는 영화 장면에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물입을 깨는 불청객이 있다. “삐리리리리~” 바로 핸드폰 벨 소리다.

글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홍성인 대리



교향곡 연주를 멈추게 만든 벨 소리
공연장의 음악보다, 영화관 스피커 소리보다 앞·옆·뒷사람의 더 크게 울린 벨 소리는 수많은 관객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다. 음악회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연주자들은 연주에 집중할 수 없고 감상하는 관객은 기분을 망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음악회장과 영화관에서는 시작 전 관객에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람 도중 벨 소리가 울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2012년 1월,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말러 교향곡 9번 연주 도중 누군가의 휴대전화에서 벨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인 지휘자 앨런 길버트는 이를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음악회를 중단시키면서 ‘벨 소리를 꺼달라’고 부탁했다. 느닷없는 연주 중단에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지휘자의 결단에 지지를 보냈다. 일부 관객은 ‘휴대전화 주인을 극장 밖으로 내쫓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뉴욕 필하모닉의 170년 연주시상 최초로 벨 소리로 인해 연주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음악회가 중단된 이후에도 벨 소리는 3~4분 동안이나

계속 되었다. 이에 대해 앨런 길버트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를 통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교향곡 마지막 부분의 가장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 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 차례 벨 소리를 꺼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이 부끄러웠는지 자신의 벨 소리가 아닌 척 행동하며 벨 소리를 끄지 않아 연주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장 매너모드는 진동이 아니라 ‘off’

일상생활에서는 회의 시간 같은 상황에서 진동모드로 전환하기만 해도 매너 있는 행동이지만, 절대적 침묵이 요구되는 공연장에서는 진동도 소음이다. 중간 휴식 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가 스위치를 끄지 않고 다시 입장할 때도 있으니 휴대전화 전원을 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 공연장을 갈 때 아예 휴대전화를 자동차에 놔두거나 가방에 넣어 물품 보관소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휴대전화 전원을 미리 끄는 것을 잊었다고 해서 연주 도중 휴대전화를 열면 화면의 빛으로 인해 주변 관객, 특히 2, 3층에 앉은 관객의 시선을 빼앗으며 음악 감상을 방해하게 된다.



음악회의 품격은 연주자만의 몫이 아니다. 품위가 있는 관객과 올바른 관람 문화가 함께할 때, 그 음악회의 품격은 진정으로 빛을 발한다.
우리가 흔히 찾는 영화관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영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화관에서 일행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경우도 있다. 2시간 전후의 러닝타임 동안 그런 관객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상당한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음악회와 영화 감상은 일상과의 단절이다. 이번 연말에 공연이나 전시, 영화 관람을 계획하고 있다면 휴대전화를 끄고 음악에, 영화와 미술의 세계에 집중해보자. 더욱 값지고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것이다.

알아두면 좋은 문화 Tip

- 뉴욕에서는 2003년부터 음악회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최고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 일본이나 호주에서는 극장이나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등 정숙을 요하는 공공장소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 강제로 휴대전화 수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쿄 산토리홀은 1999년 대형 음악회장으로서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 전파 차단장치를 설치했다.

세아제강



온정의 구호기금 전달

세아제강은 10월 25일 휴스턴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 피해자를 위한 구호기금 \$65,000을 Chamber of commerce에 전달했다. 휴스턴은 세아제강의 북미 생산법인 SSUSA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전달한 기금은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 학교 및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포항 지역에 발생한 지진 피해 성금으로 세아제강은 2억 원을 기탁하며 재난 극복에 힘쓰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따스한 온정을 전했다.

세아씨엠



연탄배달 봉사활동

세아씨엠은 11월 18일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연탄배달 봉사활동은 세아씨엠이 매년 진행하는 나눔활동으로, 이번 연탄배달 봉사활동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아씨엠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했다. 올해는 한 가구당 200장씩, 총 5가구에 총 1,000장의 연탄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세아씨엠은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세아베스틸



2017년 합동소방훈련 실시

세아베스틸은 지난 10월 19일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군산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했다. 소방훈련은 공장 규모에 따라 실시하지만, 2016년도 2건의 대형화재로 소방 조직의 개편과 아울러 소방장비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다. 세아베스틸 안전환경팀에서는 현재 현장에서부터 화재 예방 실천과 적극적인 초동 조치 대응 체계를 위해 각 팀별 소방보조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아 ESAB



전사 야유회 개최

세아 ESAB은 11월 24일 부산 영도 현여울마을 일원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를 실시했다. 이번 야유회는 지난 2015년 체육대회 이래 3년만에 이루어진 전사 행사로 둘레길 행진, 레크레이션 그리고 만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200여 임직원들은 힘든 외부환경 아래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서로를 격려하고 '단합을 통한 위기극복'을 다짐했다.

세아특수강



초등학교 도서 기증

세아특수강은 지난 11월 6일에 충주 소재 야동초등학교와 혜성학교를 방문하여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도서 기증은 상대적으로 문화, 교육 소외 지역인 읍면 소재지 청소년들에게 도서를 통해 학업 및 지식과 교양을 증진시킬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종탁 공장장은 '문화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물론 책 속의 지혜와 사랑을 배워 빠르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세아 M&S



제 54회 무역의 날 '1억불 수출탑' 수상

세아 M&S는 지난 12월 5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제54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억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세아 M&S는 주력 제품인 합금철의 지속적인 생산량 증대와 판로 모색, 그리고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발로 수출 물량을 확대하여 그 성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세아 M&S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품 개발 및 영업망 확보를 통해 제조 경쟁력을 향상해나갈 계획이다.

세아제강

입사

정라원 포항 업무지원팀
김수혜 포항 생산1팀

결혼

최민호 포항 생산3팀

출산

김형규 부산영업1팀
조원희 경영관리팀

조의

송성용 포항 생산1팀(모친)
한기석 포항 생산1팀(모친)

세아베스틸

결혼

최중선 생산관리팀
전형수 압연설비팀
박성우 부산영업팀
김동주 제강팀

조의

김승희 대형압연팀(모친)
장용진 단조생산팀(모친)
이호남 제강팀(모친)
추병철 제강팀(모친)
최영규 압연설비팀(모친)
박상현 소형압연팀(부친)
김인구 소형압연팀(부친)
김상준 제강팀(부친)
이원경 제강팀(부친)
진상섭 단조설비팀(부친)
김영국 제강팀(부친)

문중환 서울영업팀(부친)
강동진 압연설비팀(부친)
서영식 공정연구센터(빙모)
이만영 품질보증1팀(빙모)
박길정 제강팀(빙부)
문재강 특)생산관리팀(빙부)

세아창원특수강

결혼

한정호 압연설비팀
이상하 3제강팀
김대우 품질보증팀
김상섭 품질보증팀
김정훈 가공팀
제승률 수입검사팀
김범곤 산세파트
이철우 특수제강파트

출산

주환구 강관팀
임병수 강관단조설비팀

조의

민병순 강관팀(모친)
권오완 강관팀(빙모)
김인갑 수입검사팀(빙부)
김면남 3제강팀(부친)

세아특수강

결혼

이상엽 서울 구매팀

출산

김효민 충주 생산팀
나휘연 서울 구매팀

조의

강동균 서울 경영기획팀(빙부)
최경환 서울 수출팀(조모)
김현석 서울 경영기획팀(빙모)
허 서 포항 생산팀(빙모)
이경도 포항 생산팀(조모)
김범석 포항 생산팀(모친)

세아씨엠

입사

채기륜 생산팀

세아 FS

입사

이상형 서울사무소 마케팅팀
유재영 서울사무소 마케팅팀

출산

문병국 인사팀

세아 ESAB

조의

김윤곤 생산팀(부친)

세아메탈

결혼

한영아 업무지원팀

조의

김정은 생산설비팀(빙부)

세아 M&S

결혼

이경민 생산팀

세아 L&S

입사

이나연 인천영업소
김윤정 철근영업팀

결혼

이동엽 군산영업1팀
이동욱 포항영업팀
김 설 당진공장
박지혜 군산영업2팀

세아엔지니어링

입사

김태진 개발 1팀
김경준 개발 3팀

결혼

황용식 개발 2팀

출산

서윤정 영업팀

조의

유지선 품질보증팀(조모)

Post Box 독자참여

Reader's Letters 세아 가족 여러분이 지난 호 <세아가족>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특별한 만남 코너를 재미있게 읽었어요. 형제가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끈끈한 우애를 다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형제면서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앞으로 가족애가 느껴지는 다양한 내용 기대할게요!

- 이광남

'물보다 진한 혈연의 정'이라고 했나요? 형제가 같은 회사를 다니며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세아의 이미지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아가 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김태원

테마 스토리를 읽으며 다방면의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세상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세아가족> 독자 여러분도 많은 책을 읽고 마음의 양식을 쌓아 해안과 통찰력을 겸비한 사람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 오수영

글로벌 세아인 코너를 보며 세계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세아인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보 전체에서 사원 모두가 마치 한 가족 같은 화목함이 느껴집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마음까지 따스해지는 사보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신예

재미있고 풍성한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세아가족> 사보를 읽다 보면 세아가 좋은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존중하고 힘을 합쳐 내실 있는 지금의 세아를 만들어 왔겠지요. 앞으로도 외유내강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 김우중

삼형제가 함께 과일청을 만드는 해피 패밀리 코너를 잘 보았습니다. 가족의 행복하고 달콤한 시간을 함께 즐기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표지부터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네요. 사보를 통해 가을을 선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 최현서

Quiz <세아가족> 11+12호를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퀴즈 정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홀트와 함께하는 세아그룹 공동 사회공헌 캠페인의 이름은?**
1. 나눔세아 2. 도움세아 3. 드림세아 4. 뷰티풀세아
- 첫물을 몰드에 부어서 블룸이나 빌렛 등의 중간 소재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1. 조괴 2. 연주 3. 압출 4. 슬리팅
- Be real SeAH人. Start from ground up의 약자로, '세아인이 되기 위해 현장에서 시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현장 교육의 이름은?**
1. Real SeAH 2. SeAH Start up 3. Be the SeAH 4. BEST SeAH

지난 호 퀴즈 정답자

이광남	전북 군산시 나운동	김신예	경기 평택시 지산천로
김태원	부산시 북구 덕천로	김우중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오수영	경기 군포시 오금로	최현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 감명 깊게 본 영화나 책 등을 추천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hyunho.lee@seah.co.kr / 02-6970-0095

<세아가족> 사보기자

노승미	세아제강 인사운영팀(본사)
이병준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현구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김재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판재공장)
강태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강관공장)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순천)
이다은	세아베스틸 기획팀(본사)
정보람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군산)
허지윤	세아창원특수강 기획팀(서울)
박소현	세아창원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최성희	세아씨엠 업무지원팀(군산)
류상우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서울)
이형호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서미성	세아 FS 인사팀(서울)
장소라	세아 FS 업무지원팀(평택)
윤서연	세아 FS 업무지원팀(광주)
장영원	세아 ESAB 경영지원실
신상호	세아메탈 경영기획팀(서울)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김재홍	세아 M&S 경영지원팀
김진우	세아 L&S 재경기획팀
이상진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대전)
이상기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포항)



We are professional

철에 대한 세아의 실력과 전문성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강관, 특수강, 자동차 부품, 용접재료, 물류, IT에 이르기까지

창조적 혁신으로 하나되어 움직이는 철강소재 전문기업, 세아!

강철같은 실력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SeAH

세아인은 **정직, 열정, 실력**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아홀딩스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세아씨엠 세아FS 세아ESAB 세아메탈 세아M&S 세아L&S 세아엔지니어링 세아네트웍스